

자연현상인 지진이 인문학적 현상인 인간의 사상·문학에 미치는 영향

- 일본 관동대지진과 일본 근대문학을 중심으로 -

교 과 목 : 화산과 지진
담당교수 : 이준기
학 과 : 인문대학1 노어노문학과
학 번 : XXXX-XXXXX
이 름 : 임규민
제출일자 : 2011년 11월 29일



<배움의 윤리 서약>

1. 이 과제물은 내가(우리가) 직접 연구하여 작성한 것이다.
2. 정확한 출처 제시 없이 다른 사람의 글이나 생각을 가져오지 않았다.
3. 인용한 문헌의 내용이나 자료(도표나 데이터)를 조작(위조 혹은 변조)하지 않았다.
4. 과제물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거나 구매하여 제출하지 않았다.
5. 과제물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공동 제출자로 명기하지 않았다.

이 과제물은 위의 항목들을 준수하여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작성자 : 임규민 (서명)

차례

I. 서론

II. 관동대지진 전후의 일본인들의 세계관

1. 전통적 세계관 : 일본 전통 불교 문학과 <<방장기>>, <<도연초>>를 중심으로
2. 관동대지진 후의 근대적 세계관

III. 관동대지진 후 형성된 일본 근대문학의 특징 : 쇼와 시대 문학을 중심으로

IV. 결론 및 느낀점

※ 참고문헌

I. 서론

인간은 자신이 처한 자연적 환경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삶을 살아나간다. 인간이 느끼는 대부분의 것들은 모두 자신의 삶의 터전인 자연에서 나온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처한 저마다의 자연적 환경에 따라 느끼는 것들이 각기 다르며 각기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자연적 환경 중 하나로 지진을 꼽을 수 있다. 지진은 어떠한 자연적 환경보다도 인간의 생존에 대한 허무적 사유의 형성에 기여한 자연적 환경이다. 지진의 발생으로 자신이나 남의 목숨이 위협에 처한 적이 있다면 이는 그 인간에게 평생토록 생의 허무함에 대한 트라우마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진으로 자신이 평생토록 가꾸어온 모든 것이 붕괴되었다면 그 인간이 가질 허무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44초, 당시 일본 역사상 최악의 지진, 리히터 규모 7.9의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였다.¹⁾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여진은 936회에 이르렀으며 해안지대에서 해일의 피해도 발생하였다. 도쿄에서는 대화재가 일어나 관청과 가옥들이 큰 피해를 입으며 9월 3일까지 연소하였다. 이 대화재로 기온이 상승해 도쿄의 밤의 기온만 무려 46°C까지 오르기도 했다. 피해를 기록한 《도쿄지진록 전집》에 의하면, 직간접적 피해자는 모두 400만명에 해당하고 피해액은 당시 엔화로 55억엔으로 기록 되었다.²⁾

관동대지진으로 인한 대참사는 당시 일본인들의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성공적인 근대화로 아시아 제일의 강대국이 된 일본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을 일본인들은 모든 것을 허무로 돌리는 대지진 앞에 일종의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바라보는 지식인들 또한 무수한 반성과 상념에 젖어있었을 것이다.

위 논문은 지진이 인간의 사상과 사상이 발현된 문학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아 궁극적으로 자연현상이 인문학적 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일본 관동대지진은 지진이 인간의 사상과 문학에 끼치는 영향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 따라서 위 논문은 관동대지진과 그 후 등장한 새로운 사상의 일본 근대문학을 통찰해 자연현상인 지진이 인문학적 현상인 인간의 사상과 문학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II. 관동대지진 전후의 일본인들의 세계관

1. 전통적 세계관 : 일본 전통 불교 문학 <<방장기>>, <<도연초>>를 중심으로

일본인들은 6C 불교를 수입한 이래로, 수많은 종교가 등장하였지만, 현재 불교가 일본 종교의 큰 중심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에서 불교가 오랜 세월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불교 사상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연기관과 관련이 깊다. 연기관이란 원인과 조건에 따라 모든 결과가 성립된다는 견해이다. 인간은 태어났으니 곧 죽어야 한다는 식의 원리이다. 따라서 천재지변 또한 원인 없이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순응해야하는 조건적 법칙인 것이다.³⁾ 이러한 연기관에 의해 일본인들은 인생에 대한 무상감이 의식에 내재되어 있었다.

일본인들의 천재지변에 의한 전통적인 무상감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대표적인 문학작품으로 <<방장기>>와 <<도연초>>가 있다. 우선 <<방장기>>는

1) 강덕상, <<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 김동수·박수철 옮김, 역사비평사, 2005, p.27.

2) 이금재, <요코미츠 리이치 <<파리>>와 <<머리 및 배>> - <관동대지진>을 축으로 해서-, <<논문집>>, 남서울대학교, 1998, p.332.

3) 오쿠보 료준 外 역음, <<일본 불교문학의 이해>>, 김환기·요시모토 하지메 옮김, 동국대학교출판부, 2006, pp.55-56.

1212년 완성된 가모노 초메이의 수필집이다. 중세 일본인의 천재지변에 대한 인식이 담담한 필체로 매우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방장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겐라쿠 시대의 대지진'에 관한 서술이다.

도시의 근교에서는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사찰의 법당이나 탑이 큰 피해를 입어 어느 곳 하나 온전한 것이 없었다. ... 무시무시한 것 중에서도 ... 지진임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대불의 머리가 떨어지는 등 매우 심각한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 사람들이 어차피 저마다 허망함을 이야기하며, 얼마 동안은 세상살이 등에 아무 흥미를 지나지 못한 채 덧없음을 말하고 ...4)

중세 시대 일본인들의 지진에 대한 반응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특히 지진으로 인해 불상의 머리가 떨어지는 등의 일을 겪은 후의 일본인들의 반응은 허망감 자체이다. 일본인들이 겪는 지진이 겐라쿠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만큼 이러한 허망감의 반복은 일본인들이 인생무상으로 대변되는 연기관에 바탕을 둔 불교를 믿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쓰인 요시다 겐코의 <<도연초>>에도 일본인들의 인생무상적 세계관이 드러나 있다.

무상이라는 죽음이 닥쳐오는 것은 물이나 불이 덮쳐오는 것보다도 빠르고 피할 길도 없는 것이 아닌가. 죽음에 임박하여 늙은 부모나 어린 자식, 또 주군의 은혜, 친지의 정애 등을 버릴 수 없다고 해서 안 버리고 버틸 수가 있던 말인가.5)

비슷한 시기의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관과는 사뭇 다르다. 요시다 겐코 급의 조선 지식인들이 총과 효를 목숨보다 소중히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주군의 은혜, 친지의 정애' 또한 버릴 수 있는 인생무상적 세계관이 일본인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관동대지진 후의 근대적 세계관

관동대지진이라는 당대 사상 초유의 자연재해를 겪고,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경제 공황이 맞물려 일본인들은 정신적 물질적 공황을 겪게 된다. 특히 대지진 발생 4년 만에 1927년 소설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막연한 불안'이라는 유서와 함께 자살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 일본인들의 혼돈과 막연한 불안함이라는 정서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6) 막연한 불안함이라는 정서를 느낌과 동시에 일본인들은 새로운 또 다른 정서적 체험을 경험한다. 지진으로 인해 에도 시대의 정취가 사라진 자리를 새로운 근대적 도시의 외관들이 대신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도쿄의 젊은이들의 일부는 전통 일본적 가치관을 버리고 서구식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에 기성 일본인들은 대지진을 경험함에서 비롯된 막연한 불안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믿고 있던 가치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7) 또한 일본인들은 허무주의적 세계관에 한층 더 사로잡혀 아무 생각 없이 긴자의 쇼윈도를 구경하며 할 일 없이 거리를 배회하기를 자주하였다. 이를 '긴부라'라고 칭했는데 지식인들로부터 민중들까지 당대 일본인들을 사로잡은 버릇이었다.8)

정리하자면 관동대지진 후의 일본인들의 세계관은 모더니티로 나아가고 있었으나 그 저변에는 막연한 불안이라는 전통적 의식이 한층 강화된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가모노 초메이, <<방장기>>, 조기호 옮김·주해, 제이앤씨, 2004, pp.71-74.

5) 요시다 겐코, <<도연초>>, 송숙경 옮김, 을유문화사, 1996, p.59.

6) 손지연, <쇼와 초기 문학에 나타난 도쿄 표상과 일본인의 심상지리>, <<일본학연구>>, 단국대학교 일본 연구소, 2009, p.311.

7) Ibid., pp.311-312.

8) Ibid., p.323.

III. 관동대지진 후 형성된 일본 근대문학의 특징 : 쇼와 시대 문학을 중심으로

관동대지진 후 일본인들의 의식에 형성된 것은 새롭게 들어온 모더니티와 전통적으로 내재했던 막연한 불안함이었다. 이에 일본 문학인들은 다양한 행동양식을 보인다. 기쿠치 간이나 다니자키 준이치로 같은 문학인들은 낙향하며 좌절한다. 반면 요코미츠와 가와바타는 기쿠치와는 다른 행동양식을 보인다. 급변한 일본인의 정서에 반응한 새로운 문학을 일으키려한다.⁹⁾ 이러한 시도 속에서 탄생한 것이 신감각파 문학이었다. 신감각파 문학은 일본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쇼와 시대 문학을 대표하는 문학 장르이다.

신감각파 문학의 대표주자인 요코미츠가 대지진 직후 발표한 <<머리 및 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차내는 다시 지루함과 졸리움 때문에 피곤해 있었다. 그때 갑자기 열차가 정지했다. 잠깐 동안 차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없이 있었다. ... 무수한 머리들이 위치를 훑트리고 동요하기 시작했다.¹⁰⁾

이 장면은 은유적 장면이다. 열차가 정지한 것은 파죽지세로 국력을 키워나갔던 일본이 관동대지진으로 한풀 꺾이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 후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인들이 대지진 이후 겪었던 불안과 동요를 의미한다. 요코미츠는 이 작품의 결말을 결국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살아남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 이는 일본인들에게 대지진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 보여진다.

또한 위 작품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보면, 쇼와 시대 문학이 일본인에게 전하려 했던 메시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위 작품에 등장하는 '신사'라는 인물은 외적으로 승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권능을 소유한 인물이다. 하지만 작품 어디에도 실제로 '신사'라는 인물이 그러한 권능을 소유할 만한 인물인지는 나와 있지 않는다. 그러나 승객들은 '신사'라는 인물을 막연히 신뢰하고 따른다.¹¹⁾ 반면 '소년'이라는 인물은 열차가 출발할 때와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난 후 모두 일관된 행동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다른 사람의 권위에도 굴하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인물이다. 작가는 승객들 중 '소년'만이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설정한다.¹²⁾ 이러한 두 상황의 대비를 통해 작가는 관동대지진이라는 대혼란에 동요하지 말고 '소년'과 같은 담담한 자세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새롭게 등장한 서구적 가치관과 모더니티에 쉽사리 현혹되지 말라는 메시지 또한 전달한다.

한편, 요코미츠와 신감각파 문학 형성에 기여했던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요코미츠와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대지진 이후의 문학을 바라보았다. 1930년에 발간된 <<아사쿠사쿠레나이다>>은 시대에 맞춰가지 못하는 하층민들의 불안함과 소외의식을 그려내고 화려한 모더니티에 가려진 도쿄 시내의 허무하고 퇴폐적인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내었다.¹³⁾ 좀더 리얼리즘을 살려 관동대지진 이후의 달라진 일본인의 삶을 요코미츠보다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가와바타의 경우와 유사하게 1930년 발표된 하야시 후미코의 <<방랑기>> 또한 비슷한 특성을 보인다.¹⁴⁾ 대지진 이후 새롭게 등장한 도시적 환경에서 살아가는 소시민인 주인공이 겪는 고초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무분별한 서구적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요코미츠가 대지진으로 피폐해진 일본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려는 시도에 초점을

9) *op. cit.*, 이금재, p.332.

10) *Ibid.*, p.332.(요코미츠 리이츠의 <<머리 및 배>>의 인용부분을 재인용)

11) *Ibid.*, p.340.

12) *Ibid.*, p.342-343.

13) *op. cit.*, 손지연, p.332.

14) *Ibid.*, pp.329-331.

맞았다면, 가와바타나 후미코의 경우는 대지진 후 나타난 일본의 모더니티의 폐해를 비판하려는 시도가 더 강했던 것이다.

IV. 결론 및 느낀점

자연현상이 인문학적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지진이라는 특정 자연현상을 중심으로 작성된 위 논문은 지구상 가장 지진에 민감한 나라인 일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했다. 일본에 있었던 수많은 지진 가운데 일본인들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자리 잡았던 관동대지진을 중심으로 관동대지진이 일본인들의 사상과 문학에 미쳤던 영향을 알아보았다. 관동대지진의 영향으로 일본인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생무상적 불안함이 더욱 증폭되고 대지진이 가져다준 물질적 변화로 인해 생겨난 서구적 가치관의 유래는 기성 일본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또한 변화에 맞춰가지 못하는 하층민들은 소외의식을 느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사상적 변화에 맞춰 근대 쇼와 시대의 일본 문학인들이 이끌었던 근대문학은 대지진으로 지친 일본인들의 심상을 어루만지려는 시도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새로 전래된 모더니티의 폐해에 대한 경계와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특성을 보였다.

지진이라는 하나의 자연 현상이 인간의 심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고도로 발달한 인간 정신의 정수인 문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지진이라는 현상 자체로 온 국민이 실의에 빠지고, 이 모습에 막연한 불안함을 느껴 유명한 문호가 자살까지 했다는 것, 지진 하나로 사상과 문학의 사조가 크게 변동한다는 것 등의 모든 사실들은 지진을 경험하는 일이 거의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고 생소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자연현상의 영향을 받는 인간의 특성은 일본과 같은 특정한 나라, 지진과 같은 특정한 현상 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자연현상이 인문학적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만큼 인문학도로서 인문학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닌 그 인문학적 현상에 기여한 여타 지구과학적 현상들도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알아나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강덕상, <<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 초판, 역사비평사, 2005.
- 가모노 초메이, <<방장기>>, 초판, 제이앤씨, 2004.
- 야마다 쇼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 초판, 논형, 2008.
- 오쿠보 료준 外 역음, <<일본 불교문학의 이해>>, 초판, 동국대학교출판부, 2006.
- 요시다 겐코, <<도연초>>, 초판, 을유문화사, 1996.
- 손지연, <쇼와 초기 문학에 나타난 도쿄 표상과 일본인의 심상지리>, <<일본학연구>> 26권, 단국대학교 일본 연구소, 2009.
- 이금재, <요코미츠 리이치 <<파리>>와 <<머리 및 배>> - <관동대지진>을 축으로 해서->, <<논문집>> 4권, 남서울대학교, 1998.
- 이금재, <요코미츠 리이치 문학과 도시 - 동경, 상해, 파리를 중심으로 ->, <<동북아 문화연구>> 15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
- 장남호, <도연초의 무상관 고찰>, <<인문학연구>> 11권, 충남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984.
- 정형, <근·현대 문학텍스트를 통해 본 일본인의 심상지리>, <<일본사상>> 15권, 한국일본사상학회, 2008.